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 살리기 나서야”



“4세대 방사광가속기 전담으로”

16일 오전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남 지역 당선자 10명이 민주영령에 대한 참배를 마친 뒤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제21대 총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완전한 압승으로 끝나면서 정부와 여당은 향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극복과 침체된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된 만큼 포용력 있는 자세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협치는 물론 범진보세력 등과 합심해 이번 총선에서 내세웠던 ‘국난 극복’을 슬기롭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위기 대응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각종 경제정책 등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결과 민주당은 지역구 투표에서 163석을,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석을 차

총선 민주당 압승... 민심, 국난극복 정부 여당에 힘 실어줘
광주형 일자리 본궤도 올리고 민생회복 대책 빨리 마련해야

지해 모두 180석에 달하는 ‘슈퍼여당’이 됐다. 이는 국회 전체 의석(300석)의 5분 3에 해당된다.

코로나19사태 속에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민심은 ‘견제’나 ‘변화’ 대신 ‘안정’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여당이 주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야당의 ‘정권 심판’ 보다는 여당의 ‘국난 극복’ 슬로건이 이번 총선에서 효과를 톡톡히 거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민들은 국난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면서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강력한 처방이 이어질 것을 시사했다. 이는 그동안 야권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음에도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정부의 정책에 믿음을 보여줬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메시지인 셈이다.

특히 제21대 국회가 여대야소 국면이

조성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도 안정적인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됐고,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면서 앞으로 경제정책에 있어 강력한 처방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도 이날 국민들에게 선거 결과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위기 대응에 최우선 순위를 뒀다. 이해찬 당 대표는 “선거 결과와는 별개로 우리 앞에는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면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위기 대응은 단 한 시도 허비할 수 없는 중대한 책무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신속처리를 강조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국민 여러분의 지엄한 명령대로 코로나 19와 경제가 후퇴하는 국난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 전격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당선자들도 이날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후 해단식을 갖는 자리에서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쏟

겠다”면서 “총선으로 확인된 민심을 받들어 더 낮은 자세로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형 일자리의 얽힌 매듭을 풀고 코로나19 완전 종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코로나 극복 이후 민생 회복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자총협회 등 재계는 4·15 총선을 마친 뒤 출범할 21대 국회에 코로나 19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조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여야 협치를 통해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인들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노동·환경 규제를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 19이후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21대 국회는 ‘경제 국회’ ‘중소기업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시민당 단독 180석 확정

21대 총선 전국 개표 완료
통합·미래한국 103석 그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심이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주면서 180석에 달하는 ‘슈퍼여당’이 탄생하게 됐다. 국회 전체 의석(300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슈퍼정당이 선거를 통해 탄생한 것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전국 개표율 100%를 기록한 16일 오전 10시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지역구 투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이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선 미래한국당 33.84%, 시민당 33.35%, 정의당 9.67%, 국민의당 6.79%, 열린민주당 5.42% 등을 기록했다. 이들 의석수로 환산하면 미래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한복판에서 치러진 이번 총선이 예측을 뛰어넘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귀결되며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에 들어 정국은 20대 국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당장 개헌을 제외하고는 무소불위의 의회권력을 부여받은 여당이 현 정부 주요 입법과제인 검찰·사법개혁 등에서 추가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경우 집권 중반을 넘겨 오히려 본격적인 개혁과제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 사퇴와 함께 비대위 구성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에 휩싸였다.

사실상 양당 체제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일부 의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제3당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며 ‘여대야소’의 21대 국회는 전체적인 양당 체제로 회귀하며 전체적인 입법부 지형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광주·전남 등 호남에서도 민주당이 전체 28석 가운데 27석을 싹쓸이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세력·세대교체가 현실화됐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치 지형 속에서 호남 정치권이 민주당의 중심에 다시 설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세월호 6주기...광주·전남 추모 행사 잇따라

정 총리 “진실 끝까지 규명”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광주·전남을 비롯, 전국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관련기사 6면〉

세월호 참사 6주기 기억식이 16일 오후 3시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책임·기억·약속’을 주제로 유가족과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영상 추모사를 통해 “지난 6년 우리 모두의 고통과 아픔을 통한 성숙의 시간이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힘찬 원동력이 됐다”면서 “정부는 세월호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억식에 직접 참석해 추모사를 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끝까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2014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행동과 변화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이날 별도로 남

독한 성명서를 통해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소시효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참사 발생 및 구조 과정 등에 대한 모든 진상 규명,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 관련 정보의 성역 없는 공개 등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안산 단원고는 운동장 옆에 설치된 추모 조형물 앞에서 추모식을 진행했다.

광주·전남에서도 추모 행사가 잇따랐다. 세월호광주시민상추모모임도 광주 동구 YMCA 백제관에 분향소와 전시실 등 세월호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방문객들에게 향을 피우는 대신 묵념으로 희생자를 추모하도록 했다.

진도에서도 이날 오후 ‘6년의 기억, 그리고 다짐’을 주제로 하는 추모 행사가 팽목 기억관 앞에서 열려 추모 행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발언 등이 이어졌다. ‘단원고 4·16 기억교실’, ‘0416우체통’ 등 온라인상으로 마련된 추모 게시판도 접속자가 몰렸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가톨릭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68 창간68주년
광주일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